

“

2022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수기공모전 당선작



[장려작] 신선하고 맛난 먹거리로 저희 가족은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8일만 기다렸어요!(신청 날짜)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10월에 출산을 한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작년에 저의 임신 사실을 안 지인이 임신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정책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이미 모집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아쉬웠는데 감사하게도 출산 후 1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내년 신청 날짜를 기다렸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모집 날짜가 2022년 2월 8일인 것을 확인하고, 그날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친언니가 임신을 하였고, 언니한테도 이 정책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지인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드디어 2월 8일, 홈페이지 접속자가 꽤 많은 것을 보고 안될까봐 조마조마했는데, 현재 저도, 언니도 선정이 되어 좋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유용할까? 신선할까? 괜찮을까?’

선정이 되어 기뻐지만, 사실 처음 이용하기 전까지는 ‘이게 유용할까?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쌀을 제외하고, 신선도, 직접 보고 살 수 있는 신뢰도로 인하여 채소 등은 필요할 때 집 근처 마트에서 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월 2일부터 주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루다가 4월 2일에 첫 주문을 했습니다. 그것도 주문을 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된다는 문자를 받고 난 뒤였습니다. 마침 그 때 먹고 있던 쌀이



그림 2. 주문한 쌀로 만든 맛있는 밥

떨어져서 긴가민가하는 마음으로 쌀과 함께 남편과 제가 주로 먹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제가 쌀을 주문한지 모르고, 남편이 쌀통을 보더니 쌀을 주문해야겠다고 하길래 이미 임신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통해 주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잘했다고,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집안 살림 챙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살림의 많은 부분을 꾸려나갈 때 남편이 믿고 맡겨주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남편이 저렇게 말했을 때 저를 많이 신뢰해주는 것같이 느껴져서 이 정책이 참 유용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가정은 쌀 소비가 꽤 많습니다. 남편과 제가 밥을 좋아하기도 하고, 집에서 밥을 거의 해먹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기가 없었을 때도, 아기가 있는 현재도 그렇습니다. 쌀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후기가 있었지만 제가 받은 쌀은 다 행히 벌레가 없었고, 하나만 구매한 것이 아쉬울 정도로 밥맛이 좋았습니다. 이때 같이 주문한 미역과 고기로 미역국도 해먹었는데, 참 맛있었습니다.

“아’ 엄마, 더 주세요.” 하는 것같이 이유식을 맛있게 먹는 아기와 우리 부부의 맛난 먹거리

아기를 출산한 엄마는 산후조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중에 먹거리도 참 중요합니다. 저는 산후조리와 산욕기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산모들, 수유부들은 잘 먹어야 합니다.

몸이 회복된 산모들은 본인이 먹는 것보다 아기가 먹는 것에 더 신경을 쓸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먹을 것보다는 아기가 먹을 것을 더 생각합니다. 이유식 중기, 후기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초기 이유식1,2는 식단표를 짰고, 그것에 맞춰 아기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저의 아기는 4월 초부터 이유식을 먹고 있고, 현재는 초기 이유식2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초기1과 2에 사용된 채소는 없는 재료만 빼고 90% 가까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이용하였습니다. 배송 받을 날짜도 선택할 수 있고, 유기농에 신선한 채소를 주문하여 아기에게 먹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기가 ‘아’ 벌리고 이유식을 잘 먹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사랑스럽고 뿌듯합니다. 마치 어미 새가 아기 새에게 먹이를 줄 때 아기 새가 입을 벌리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유식을 만든 뒤 남은 재료로는 어른 반찬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중에서도 비타민채가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유식을 만들기 전까지는 비타민채(=다채)를 몰랐었고, 비타민채로 무침을 해서 먹었을 때 깜짝 놀랄 상큼한 맛으로 입맛을 돋웠기 때문입니다. 이유식 책에 비타민이라고 나와있길래 부끄럽게도 저는 ‘비타민? 아기에게 비타민 약을 먹이라고? 설마 뭔가 이상한데? 뭐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타민채의 원래 이름은 다채인데,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비타민채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비타민채로 이유식을 만들어 아이에게 먹일 때도, 무침으로 어른 반찬을 해먹었을 때도 마치 봄을 통째로 먹는 것같이 상큼했습니다. 남편도 맛있다고 하길래 제가 남편에게 “아기 덕분에 우리도 맛있는 거 먹네. 아기 덕분이야”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친환경 꾸러미를 통해 이유식을 잘 먹는 아기를 보면서, 또한 남은 재료로 저희 부부도 반찬을 해먹으면서 처음 이용하기 전에 제가 가졌던 '인터넷으로 채소를 구입하는 것이 괜찮을까? 이 정책이 유용할까?'라는 기우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림 3. 주문한 시금치로 만든 소고기시금치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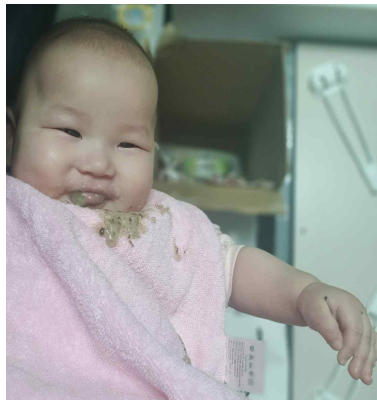


그림 4. 이유식 먹고 난 뒤 기분 좋은 아기의 모습



그림 5. 소고기시금치미음을 다 먹은 모습

구매액의 80%를 지원해주는 통 큰 정책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의 또 다른 장점은 구매액의 80%를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싼 한우, 쌀 등 부담 없이 주문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평소에 고기를 많이 먹는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고기를 먹으려고 할 때 한우가 비싸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한우, 어떨 때는 다른 나라 고기를 삽니다. 그런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에서는 구매액의 80%를 지원해줘서 한우를 부담없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3번을 주문했는데, 그 중 두 번 한우를 주문하였고, 미역국과 소고기무국을 끓여서 먹었습니다. 고기 빛깔도 좋았고 맛있었습니다.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쌀은 매일 먹어야 하니까 비싸도 살 수밖에 없었는데, 80%의 지원금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것은 이유식에 들어가는 채소였습니다. 초기 이유식2를 할 때 고기를 제외하면 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필요한 재료를 사서 다 먹일 수 있었습니다. 지원금이 없었더라면 꽤 큰 돈이 들었을텐데, 적은 돈으로 신선한 채소를 사서 이유식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는 찐 고구마가 있습니다!(며칠 째.....)

초기 이유식2를 만들면서 경험한 일입니다. 필요한 채소를 주문했는데, 그 중

에 무가 있었습니다. 무를 주문하는 김에 소고기무국을 끓여먹으려고 한우도 같이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한우로 인해 농산물 비중이 50%에서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좋아하는 고구마를 한 봉지 더 주문했습니다. 한 봉지는 이유식을 만들며 소진했는데, 한 봉지가 남아 나중에 찌먹으려고 베란다에 뒀다가 베란단에 자주 가지 않아 깜빡하면 고구마가 썩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찌서 냉장고에 뒀고, 간식으로 하나씩 먹고 있는데,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정책이 임산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주문한 잡곡 포장에 '두레생협은 수입 잡곡에 의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국내산 잡곡을 공급함으로 지속 가능한 잡곡의 생산기반을 만들어 갑니다.'라고 쓰여있었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친환경으로 힘겹게 농사를 지으며 국내산보다 상대적으로 싼 수입산과 경쟁을 하는 것이 쉽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품질면에서는 국내산이 더 좋지만 그만큼 비싸다보니 사정이 좋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매자의 입장에서 주문을 할 때 농산물을 50%이상 구매하는 것이 조금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비중을 45%나 40%로 낮춰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50%를 맞추기 위하여 당장 먹을 일이 없는 것을 구매하여 썩어 못 먹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기 이유식1을 기대했는데.....

제가 이용하고 있는 두레 생협물에는 완성형 꾸러미와 선택형 꾸러미가 있습니다. 완성형 꾸러미는 소고기미역국 꾸러미, 돼지불고기 꾸러미 등 정해져 있어서 하나를 선택하면 꾸러미로 완성된 제품을 살 수 있고, 선택형 꾸러미에서는 필요한 것을 골라 주문할 수 있습니다. 선택형 꾸러미에 쌀, 현미, 잡곡 등 곡식, 참외, 수박, 사과, 바나나 등 과일, 부추, 상추, 무, 오이 등 채소,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등 버섯류, 돼지고기, 소고기 등 축산류, 우유, 요거트 등 유제품, 버섯류 거기에 아기 간식인 떡병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서 놀랐고 좋았습니다. 다양하게 주문해서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 중기 이유식1에 필요한 채소가 없었습니다. 초기 이유식2가 거의 끝나가서 중기 이유식1에 필요한 아욱, 근대, 적채, 비트 등을 주문하려고 했는데 없었습니다. 설마하는 마음에 다시 검색을 했는데, 똑같았습니다. 초기 이유식처럼 이번에도 신선한 채소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아기에게 먹이고 싶었는데, 없어서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대신 중기 이유식2에 필요한 재료인 양송이버섯, 파프리카, 콩나물 등은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욱, 근대, 적채, 비트

를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기 이유식1 재료는 없지만 그래도 남편과 제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많고, 중기 이유식2 재료가 있으니 유용하게 이용하겠습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임신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정책

나라에서 임신부와 출산한 여성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많이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중에 하나인 임신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정책도 감사합니다. 제 주변에 이 정책을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알려야겠습니다. 더 많은 임신부와 출산한 여성이 알고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옛날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영양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지만 여전히 한 생명을 품고 자라게 하는 임신부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은 필수입니다. 수유부도 마찬가지고요. 친환경으로 질 좋은 제품을 제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기에게도 마음 놓고 먹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유식 시간을 기대하고, 남김없이 잘 먹으며 무럭무럭 자라는 아기를 보면서 또, 저희 부부도 주문한 제품으로 여러 가지 반찬을 맛있게 해먹으면서 임신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신청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용한 정책 감사합니다!